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2001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대학도서관은 어떻게 변화하고 사서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다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8월 27일-28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전국의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도서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중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학술세미나에서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우선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이석호 관장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사서에 대해 발표하였다. 디지털 도서관은 더 많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과 장소,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디지털 도서관은 결국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디지털 사서는 정보자원의 관리자로서 디지털 자원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디지털 사서는 역동적이며, 시사적이고 신속하며 실천적이며, 통계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하며,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환경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세미나, 훈련, 강의, 연수 등에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IT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영미 관장은 '한국

대학도서관의 맞춤형 디지털 도서관'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21세기 대학도서관은 지식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지식자원을 전달하고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실과 가상 환경 모두에서 고객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현재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수많은 도서와 DB를 들여왔으나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 21세기 대학도서관에는 다양한 콘텐츠, 차별화된 서비스,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관리(CRM 개념) 도입, 고품질의 적극적인 정보서비스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도서관들은 전통적인 디지털 도서관을 넘어 맞춤형 디지털 도서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보의 과부하, 웹의 대중화로 인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 필요, 정보 접근 방식의 변화, 개인별 차이에 대한 인식, 개별 이용자 특성의 중시, 새로운 정보배포 기술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해 맞춤형 디지털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완전하게 이용자 개개인에 적합한 도서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MyLibrary@NCState와 연세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My Library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캠퍼스 포털과 연계하며, 적응적/지능적 디지털 도서관이 되어야 하며, 보안 및 개인 비밀 유지, 개인 페이지 구축의 용이성, 사서인력의 보강 및 재배치 등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구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들은 지식 포털 사이트, 일차적 학습/연구 도구, 개인지식관리시스템, 지식 공유 공간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강연을 마쳤다.

끝으로 김준형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화지원담당관은 “대학도서관 정보화 및 학술정보유통체제 구축방안”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국내 대학의 환경변화로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교수들은 연구업적 평가와 강의 평가제의 도입, 학생들은 졸업 요건의 강화로 학술연구에 대한 정보 확보가 증대되었다. 현재 학술정보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자료 인문비율은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50-70%, 기술과학분야의 경우 95%이며, 대학도서관 학술연구정보 구입현황은 1997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자료 구입비는 1,122억, 1개 대학도서관 평균은 6.1억, 미국 ARL 회원도서관 평균은 약 62억원이다. 또한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보유현황을 199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외 단행본의 경우, 영문발행 단행본수는 173,334권(Books in Print)인데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평균 6,136권을 구입하고 있어 미국 ARL 회원도서관 평균 구입 권수는 28,659권에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국외 학술지의 경우 전세계 학술지 종수 230,000종(Ulrich's IPD, 1997) 중 국내 구독 중인 외국학술지 종수는 약 15,000종, 1997년 국내 대학도서관 평균 구독 종수는 540종, ARL 회원도서관 평균 구독 종수는 15,297종으로 이 역시 크게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대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였다. 첫째 현재 학술연구 정보의 절대적 부족한

데 이는 예산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학술지 구입 예산이 외국의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외국 학술정보 가격이 상승했고, IMF 등의 영향, 각각의 대학도서관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대학도서관 협력체제 미흡을 들 수 있다. 장서공유의 미흡으로 정보서비스의 범위가 좁고, 상호대차 이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정보유통체제 구축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 확대(현 소장자료의 종합목록 DB 구축, 향후 생산정보 원문 DB 구축), 2)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상호대차 참여 확대-대학평가지표 반영, 도서관 정보화 사업시 차등 지원), 3) 예산의 효율적 활용(해외정보의 공동 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고급 학술 정보 구입, 제공 유도), 4) 예산 확대 지속 추진(활용도 지표 개발 : 소장도서별 활용도, 학술연구자의 자료 획득률, 정보의 공동 활용율, 예산 절감 효과 등), 5) 타 부처 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문화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 과학기술부 : KISTI, 국회도서관 등)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첫째, 21C 정보사회의 핵심기관으로 대학도서관이 변신해야하며, 둘째, 기관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부는 정책개발과 재정지원을 대학은 대학별 자체 정보화를 KERIS는 정보공동활용 센터, 표준화,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동 활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직원연수 특별강연회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는 대구지역 9개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직원연수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유경환 연세대학교 교수의 “더 나은 도서관의 모습 - 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와 오동근 계명대학교 교수의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인의 자세 - 도서관 이용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란 강연을 청취하였다.

유경환 박사는 우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며, 문화가 주도하는 사회 도래하여 기본권으로서의 문화향수권 요구와 전자정보 요구의 증가가 정보화 시대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이 나가야 할 방향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도서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지역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Information Technic 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서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강조하였는데 사서는 책에 대한 판단(Judgment)이 되어야 하며, 사서들이 「사서가 권하는 책」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독서운동전개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기타 사서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제고하여 사서의 사회적 인식도 제고방안 모색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유치활동 강화를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도서관 운영예산 중 인건비 과다책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서관 운영 전체 예산에 인건비를 줄여나가며, 그 돈을 사업성 경비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나아가 도서관 운영을 관리자보다 이용자 지향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동선을 줄이고 쾌적하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유경환 박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정보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TV가 나와도 라디오가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는 공존할 것으로 보이므로 독서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쳤다.

오동근 박사는 먼저 현대 도서관은 비영리조직이자 사회부속기관으로서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아야 살아남을 것이며, 또한 도서관은 정치적인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도서관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도서관에서 일하는 우리 도서관인은 도서관 자료가 점토, 대나무, 파피루스, 종이책에서 전자자료로 변하고 있으나,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안 종이책과 전자매체가 공존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보량이 폭증하므로 정보중개자(Information Broker)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도서관인은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이 강해야 하며,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이용자를 개발해서 도서관 유인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인은 포용력을 가지고, 적극적인(Positive)정신을 고취하여 사서의 설자리를 스스로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리 : 대구중앙도서관 문헌정보과 정창희 사서)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③ ; 한국기록관리협회 제3회 기록관리 워크숍

한국기록관리협회(회장 : 한상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과 매체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3회 기록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중 신중순 중부대학교 교수의 "중요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과학적 대책 방안"을 소개한다.

신중순 교수는 중요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과학적 대책 방안에 대해 1. 생물학적 열화, 2.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환경, 3. 생물학적 열화 보존대책(기록물 소독/서고 소독), 4. 국내 소독장비 개발 현황 순으로 발표하였다. 첫째로 생물학적 열화에 대해 생물학적 열화는 생물이나, 해충에 의하여 도서 및 기록물의 물성 저하, 색 변화, 재질경화 등으로 내용관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을 말한다고 하였다. 생물학적 원인 해충 및 미생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① 도서(기록물)의 경우 해충 : 좀벌레, 바퀴벌레, 연벌레, 흰개미 등이며, 세균은 Cellvibrio, cytophage, Nocardia, Serratia, etc., 곰팡이 : Aspergillus, Penicillium, Rhizopus, Trichoderma, etc, ② 박물관의 경우 해충 : 좀벌레, 연벌레, 흰개미, 빗살수염벌레, 등, 세균 : Bacillus, Serratia, Streptomyces, etc., 곰팡이 : Alternaria, Aspergillus, Mucor, Penicillium, etc. 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번째로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도(%) \ 습도(%)	상대습도(%)			
	70	50	30	10
35	0.14	0.19	0.3	0.68
25	0.74	1	1.56	3.57
15	2.74	5.81	9.05	20.7

구분	온,습도		비 고	
	온도(%)	상대습도 (%)		
국립중앙도서관	18~22℃	45~55%	5, 6, 9, 10월 7, 8월	
	18~22℃	60~70%		
	미국(도서관)	18~22℃		40~49%
	일본(도서관)	20~25℃		55~60%
유럽(도서관)	16~20℃	50~60%		
미생물 생육조건	22~35℃	60~90%		
종이 안정성	22~24℃	48~52%	Tappi T402	
인간생활 적정환경	20~25℃	45~65%	봄, 가을	

세째, 생물학적 열화 보존 대책에 대해서 살펴 보면 1) 기록물 소독을 ① 필요성, ② 대책방안, ③ 기대효과, ④ 효과 및 사례 순으로 설명하였다. ① 기록물 소독의 필요성은 중요 원본기록물의 미생물 피해 예방 대책이 시급하며 1999년 1월 29일자 제정·공포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기록물 소독 및 장비 설치의 의무화에 관한 제23조(서고관리)와 제38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물 취급자에 대한 인체 안정성 및 오염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대책에 대해서는 중요 원본 기록물의 주기적인 진공살균소독처리 실시, 인체 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천연 소독처리시스템 설치, 기존 기록물관리 인력의 활용 및 작업 효율성 증대 등을 들었다. ③ 기대효과로는 근본적인 기록물의 훼손 예방 및 보존 수명 연장, 천연소독처리를 통한 인체유독성 및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 기록물 소독장비의 100% 국내 개발로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언급하였다. ④ 효과 및 사례에 대해서는 기록물 전문보존관리기관의 소독처리시스템 교체로 한국기계연구원,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정부기록보존소

보존 연구실이 공동으로 천연소독처리시스템 연구개발을 하였다. 정부기록보존소, 육군본부 등 국산화된 천연소독처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국가공인기관에서 천연소독처리시스템의 처리효과 검증의 예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에서 99.9%이상의 살균력, 항균력 효과를 인정받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안정성 보증 및 항균마크를 부여받았다. 특허청 제99-0146703호로 천연항균제에 의한 기록물의 소독방법 및 소독장치가 특허 인정을 받았다. 2) 서고 소독에 대해서도 ① 필요성, ② 대책방안, ③ 기대효과, ④ 효과 및 사례 순으로 살펴보았다. ① 서고 소독의 필요성은 서고 내 유해미생물 예방에 따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1999년 1월 29일자 제정·공포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주기적인 서고소독실시의무화에 관한 제 29조(살균소독 등의 보존처리)에 명시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고 내 유독성 약제의 잔류 및 관리자의 중독 예방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② 대책에 대해서는 서고 내 미생물 서식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소독작업, 잔류성 및 유독성이 없는 천연 서고소독약제 투입, 완전 자동분사시스템의 설치로 24시간 서고소독실시 등을 들었다. ③ 기대효과로는 서고 내 기록물의 최적 보존환경유지, 서고 및 기록물 관리자의 인체 안정성 확보, 지속적인 서고소독 및 효율성 확보 등을 언급하였다. ④ 효과 및 사례에 대해서는 천연 허브향을 이용한 자동 서고소독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교체를 이룬 사례를 들었다. 여기에는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서고,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 부산서고, 해군본부 기록보존소 등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이 교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의 중앙도서관

및 박물관에도 설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설치 및 관리가 간편한 공중분사장치가 도입되었는데, 서고면적에 적합한 분사량, 분무시간, 분무간격 등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별도의 전기공사가 필요 없이 자체 건전지만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천연항균제의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 기록관리협회(바이오미스트),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부산서고), 연세대학교(고문서 서고) 등을 들었다. 넷째로 국내 소독장비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1) 기존 소독방식의 문제점, 2) 천연소독약제 및 소독시스템 개발, 3) 적용사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1) 기존 소독방식의 문제점은 ① 유독성 소독약제 사용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②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 화학소독제(발암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③ 소독작업 후 지속적으로 환경폐기물 발생, ④ 100% 수입 장비로 고가 및 A/S 미흡을 들었다. 2) BOP-MASTERtm(기록물소독장비)의 특징에 대해 ① 정부기록보존소, 충남대농업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② 인체에 무해한 100% 천연항균제(BM-Solution) 사용, ③ 격리된 소독실의 설치가 불필요, ④ 작업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소독업무의 효율성 향상, ⑤ 환경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장비, ⑥ 서고 관리자 및 근무자의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예방을 들었다. 3) 마지막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 소독장비 보수, 정부기록보존소 신장비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